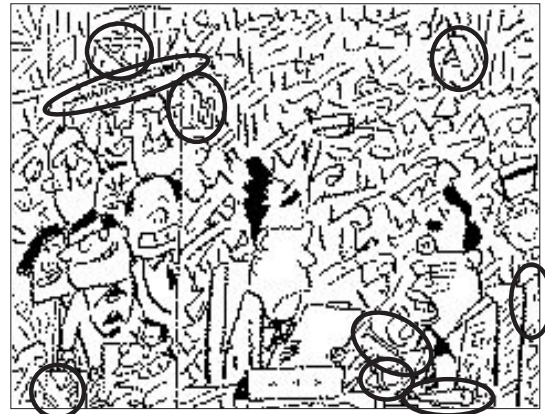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50>



황당한 남자

호탕에 처음 간 신혼부부가 첫날밤을 치르고 체크아웃을 하려고 로비로 내려 갔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객실 사용료는 1회 7만원입니다.”
신랑은 그만 입이 딱 벌어져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제정신이 든 듯 지갑을 열며 투덜거렸다.
“무지막지하게 비싼 방이로군. 여기있어요. 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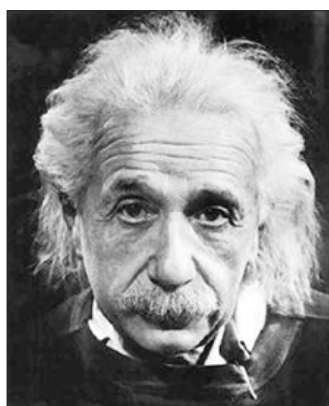


지난주 정답 고추, 다리미, 셔플록, 열대어, 양주잔, 종이배, 바늘, 펜촉, A자

찾아보기 제비, 화살, 바늘, 새집, A자, 셔플록, 열대어, 송사리, 촛불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조경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최광리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물리학의 기적으로 불리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1915년 11월14일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발표

1915년 11월14일 '물리학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꼽히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E = mc^2'라는 공식으로 유명한 상대성 이론은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뉴턴의 상대성원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이론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으로 나뉜다.

특수상대성이론은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측자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을 관성력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은 시공간이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인 값만 가진다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은 물리학은 물론 경험주의와 형이상학 등 역사적인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물리학에 큰 획을 그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남 독일의 우름에서 태어났다. 5세때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나침반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자연법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지만 기하학 책을 독파하고 미분, 적분을 독습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아이라우 고등학교에 입학

한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한 연구 및 자연 현상과 법칙에 몰입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스위스국립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베른 특허국에서 5년간 근무하며 광양자설, 브라운운동의 이론 등을 연구했다.

그리고 1905년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갈릴레이나 뉴턴의 역학을 송두리째 흔든 이론으로 시간·공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의 발견은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예언했다.

1913년 베를린대학 교수로 취임한 아인슈타인은 1915년 자신의 특수상대성이론을 중력에 포함된 이론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다.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 강한 중력장 속에서는 빛은 구부러진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는 영국의 일식관측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민족주의·시오니즘운동의 지지자, 평화주의자로서 활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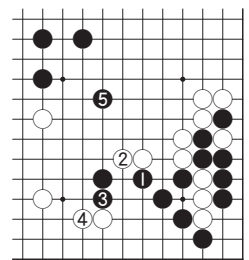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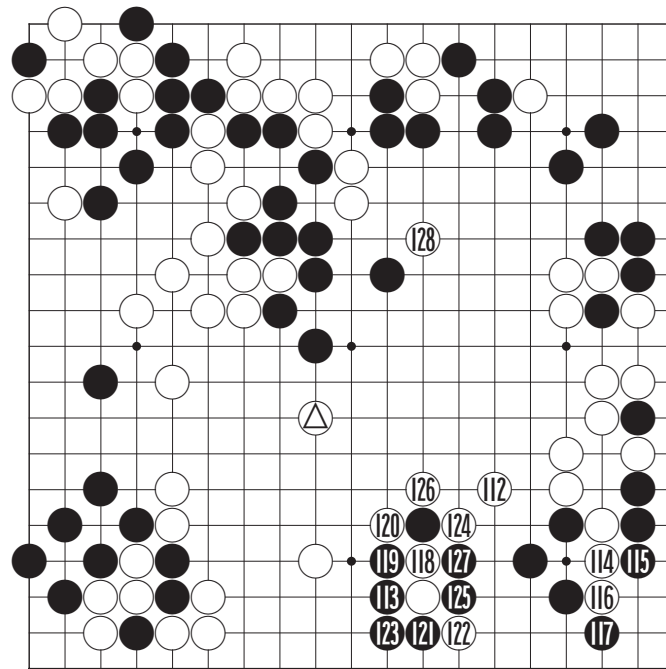
독일 히틀러 정권 당시 유대인 추방이 이루어지면서 1933년 독일을 떠나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활동했던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1955년 7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 바둑 대회

응원단을 놀라게 한 강수

어린이부 결승 7보(111~128)

白 나태현 (경기도) 黑 현승민 (제주도)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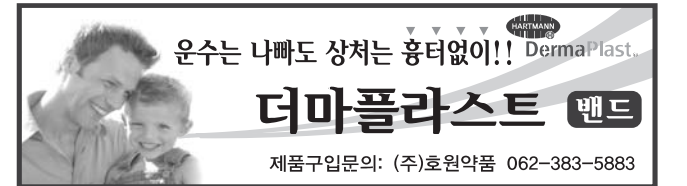
그래서 기합을 넣어 백 △에 힘차게 돌을 두드리며 위쪽 흑 대마에 위협사격을 가했는데 상생세를 타고있는 현승민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흑 111로 즉각 삭감에 나

선다. 백 112 때 흑 113이 현승민군의 기백을 보여준 수로 응원단을 깜짝 놀라게 한 강수였다. 유리한 상황인 지금은 이 수로 '참고도'의 흑 1로 받아주고 3을 선수한 다음 5로 지켰으면 무난했으며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였다. 현승민군은 굳이 쉬운 길을 마다하고 113부터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며 127까지 짝짝한 실리를 챙기며 연결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앙의 흑 대마가 한없이 얽여졌다. 과연 이 대마가 무사할 수 있을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음 10월 15일 丙辰)

- 36년생 부부싸움이 지나치면 큰 일 난다. 48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도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추진하라. 6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2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84년생 많이 일으려거든 많이 배풀어라. 행운의 숫자: 02, 31
37년생 발전은 약속되었고 시작만 남았다. 4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61년생 착실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73년생 천구리 다투니 생방이 손실이다. 85년생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9, 42
38년생 세치의 혀가 잘못하여 범원까지 가리니 신중한 하루를 보내라. 50년생 직장과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62년생 사비 구슬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 74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0, 33
39년생 상황 따라 길흉이 바뀌니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51년생 불만족스런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63년생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75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15, 41
40년생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된다. 52년생 밥손님이 보이니 문단속을 잘하라. 64년생 내 것 주고 먹는 수도 있다. 76년생 남의 입에 놀아나니 자신의 중심을 잡고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04, 16
41년생 밖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펴봐라. 53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65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77년생 귀한사람이 똑똑하게 웃으니 준비하고 있리라. 행운의 숫자: 22, 43
42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 54년생 엉뚱하게 큰일을 벌리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 66년생 호사다마 잘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78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20, 27
43년생 잘 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55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67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79년생 믿었던 협조자가 도움은 주지만 기억은 없다. 행운의 숫자: 24, 32
44년생 불평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각별히 행동에 신중해야 하리라. 56년생 배우자의 불평사가 예상되니 잘 살펴봐라. 68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리라. 80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18, 30
45년생 가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펴봐라. 57년생 가까운 사람들의 큰 싸움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 하라. 69년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81년생 겉으로 보기는 침체되나 실속은 있다. 행운의 숫자: 12, 25
46년생 친구문서를 잘 살펴봐라 괴로움이 발생하라. 58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옳은 판단이 되리라. 70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따른다. 82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니 좋은 쪽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13, 43
47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 59년생 새로운 일을 할 발판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71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잘 받아 보라. 83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23, 3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187>

That's better
그게 더 낫겠다.

- A: Let's run to Hollywood video and get a movie.
B: How much does it cost to rent a movie?
A: About three bucks.
B: Okay, that's better than paying \$6 at the theater.
A: 할리우드 비디오 가게에 가서 영화나 한 편 빌리자.
B: 한 편 빌리는데 얼마인데?
A: 약 3달러야
B: 좋아, 극장에 가서 6달러 내는 것보다 더 낫겠다.
\* get = borrow
\* buck: (구어) 1달러
\* 신발 수선, 얼마죠?
= How much does it cost to repair a pair of shoes?

오하오우 니혼고 <1187>

家内(かない)が買(か)ってくれたんだ.
아내가 사다 줬어.

- A: とても素敵(すてき)なネクタイですね.誰(だれ)にももらったんですか.
B: 誕生日(たんじょうい)わに家内(かない)が買(か)ってくれたんだ.
A: ~奥(おく)さんセンスがいいですね. よくお似合(にあ)いですよ.
B: 僕(ぼく)はファッション感覚(かんかく)ゼロだから, いつも家内(かない)に任(まか)せてるんだ.
A: 아주 멋진 넥타이에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B: 생일 축하로 아내가 사다줬어.
A: 예~ 사모님 센스가 좋네요. 아주 잘 어울려요.
B: 나는 패션감각이 제로여서, 언제나 아내에게 맡기고 있지.
素敵(すてき)だ: 멋지다
誕生日(たんじょうい)わ: 생일축하
よくお似合(にあ)いた: 잘 어울린다

니하오 쑹구워 <264>

我买了二个机器人.
저는 한개의 로봇을 샀습니다.

- A: 新的商场有什么?
xin de shāngchǎng yǒu shénme
신터 상화 요점 영파
B: 东西很多.
dōngxi hěn duō
동서 현우
A: 你买了什么玩具?
nǐ mǎi le shénme wánqù
니 샀어 뭐 장난감
B: 我买了二个机器人.
wǒ mǎi le èr ge jīqìrén
워 샀어 뭐 기계 사람
A: 새 장난감은 뭐가 있어?
B: 물건이 엄청 많아.
A: 너는 어떤 장난감을 샀어?
B: 나는 로봇 한 개를 샀어.
玩具 (wánqù) 장난감
机器人 (jīqìrén) 로봇

한자 이야기 <904>

四知(사지)
넷 사, 알 지

사지(四知)는 천지(天知), 지지(地知), 자지(子知), 아지(我知)로,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이고, 세상에 비밀이 없음을 비유한다.
후한(後漢) 때 조정은 환관들이 관을 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그러나 관서 출신의 양진은 학문에 전념하여 박학박식하고 청렴결백하여 관서의 공자(孔子)라고 불렸다. 양진이 동래군의 태수가 되어 임지로 가던 중 항음의 객사에 혼자 외롭게 있는데 참음현의 현령인 왕밀이 반쯤 술에 취한 채 찾아왔다. 왕밀은 양진의 추천으로 출세 길에 오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담소하던 중에, 왕밀이 술그머니 황금 열 냇을 양진의 무릎 위에 얹어 놓았다. 지난날 은혜 입음에 대한 보은의 의미라고 하면서 "이 밤중에 이방 안에는 태수님과 저와 단 두 사람밖에 없으니, 너그러이 받아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진은 왕밀을 쏘아보며, "자네와 나 단 두 사람뿐이니 아무도 모른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다음 자네가 알고 또 내가 아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밀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물러갔고, 양진의 청렴결백한 인행은 널리 알려져서 태위의 지위까지 올라갔다. (後漢書)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